點吐口訣 硏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

장경준***

要約

이 글은 2000년 7월에 角筆로 기입된 點吐口訣 자료가 처음 發見된 이래 現在(2008년 7월)까지 이루어진 硏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를 간략히 정리하고 硏究 文獻 目錄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의 硏究 成果는 체계적인 資料 調査와 共同 硏究를 통해 解讀 作業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點吐口訣이 釋讀口訣의 一種임이 밝혀진 점, 釋讀口訣이 宗派에 따라 〈瑜伽師地論〉 系統과 〈華嚴經〉 系統으로 나뉘는 것이 點吐口訣과 字吐口訣에 共通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점토구결 연구의 當面 課題는 입증 가능한 論議와 충실한 檢證, 釋讀口訣의 두 系統의 差異에 대한 올바른 解釋, 자유로운 硏究 與件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핵심어 : 구결(口訣), 점토구결(點吐口訣), 석독구결(釋讀口訣),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화엄경(華嚴經)

---

* 이 글은 구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2008. 2. 19~20, 서울대 규장각)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이 글은 200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머리말

點吐口訣은[1]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연구 논문을 쓸 수 있는 연구자의 수도 많지 않다. 객관적으로 硏究史를 回顧하고 展望할 만큼의 토대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借字表記의 연구사를 분야별로 검토하는 자리에서 점토구결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 분야의 연구가 특수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點吐口訣의 特殊性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과 상통한다. 점토구결 자료 대부분은 고려시대 초기의 國寶級 佛經이어서 접근이 어렵다. 게다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點이나 線 모양의 吐가 눈에 잘 띄지 않게 角筆로 기입되어 있다. 그래서 자료의 實相을 제대로 보기 어렵고,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解讀할 수 있는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 입증해야 한다.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입 장벽은 그동안 많이 낮아졌다. 정밀한 사진 영인본이 제작, 보급되어 이제 누구나 쉽게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점토구결 해독의 기초가 되는 바탕 지식이 제법 쌓이게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자료를 독점한다는 오해를 사면서까지 자료의 발굴과 공개에 헌신하고, 또 실패의 위험 부담을 알면서도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 애쓴 개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點吐口訣의 重要性은 이것이 漢文을 우리말로 풀어 읽고 그 결과를 기록한 釋讀口訣의 一種이라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2] 기존에 알려

1) 點吐口訣은 '符號口訣' 또는 '符點口訣'이라고도 부른다.

2) 점토구결이라고 해서 모두 석독구결은 아니다. 祇林寺本 <法華經>처럼 점토구결이지만 音讀口訣로 보아야 할 것도 있다. 또한 신라시대 자료로 알려진 <華嚴文義要訣>의 경우 점토구결인 듯하나 이것이 석독구결이라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구결들은 아직 여기서 다룰 만큼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論外로 한다.

진 <舊譯仁王經> 등의 字吐釋讀口訣 자료가 訓民正音 창제 이전의 國語史를 밝혀 줄 소중한 자료임이 분명할진대 우리는 點吐釋讀口訣의 온전한 解讀을 통해 석독구결 자료의 總量을 지금의 培 이상 늘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인 點吐의 體系와 運用法은 文字史 및 表記法史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점토구결 연구는, 위에 말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獨占的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草創期의 상황임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점토구결을 해독하고 나아가 국어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點吐口訣의 硏究史도 앞으로 연구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연구 성과도 다양하게 축적된 然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에 두고 점토구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硏究 成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 몇 가지와 當面한 課題를 소략하게 살펴본 다음, 그 동안의 硏究 文獻 目錄을 상세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2. 點吐口訣 硏究의 成果

2.1. 資料의 發見, 調査, 影印

점토구결은 주로 角筆로 기입되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각필스코프라는 조명 기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관찰해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2000년 7월에 小林芳規 교수가 방한하기 전까지 국내 학자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후 구결학회의 회원들이 초조대장경을 비롯한 高麗時代 初期 佛經

을 조사하였고 誠庵古書博物館에서 7種, 湖林博物館에서 3種의 점토구결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계종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별도의 초조대장경 조사단에 구결 전문가가 포함되어 이전부터 자토석독구결 자료로 알려져 있던 <合部金光明經> 卷3에 점토구결도 함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日本 南禪寺에 소장된 <瑜伽師地論> 卷8에서도 점토구결을 새로 찾아내었다. 그 밖에 延世大 中央圖書館에서도 <法華經> 卷1의 점토구결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점토구결 자료는 기본적인 서지 조사를 하고 나서 원본의 點吐와 符號를 그대로 옮기는 移點本을 작성하게 된다. 이점본을 작성할 때는 조사자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는데, 조사자의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자료라도 이점본끼리 차이가 날 수 있다. 현재 誠庵本 <瑜伽師地論> 2種과 <華嚴經> 5種, 湖林本 <瑜伽師地論> 1種의 移點本이 공식적으로 보급되었고 그 밖의 것들은 개인적으로 복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점본은 원본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에는 원본을 정밀 촬영한 寫眞 影印 자료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사진의 영상을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컴퓨터로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연구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성암본과 호림본은 사진 촬영과 디지털화가 모두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자료도 일부 진행되었다.[3] 이 가운데 誠庵本 5種은 컬러 영인본을 刊行하였고 誠庵本 2種과 湖林本 2種의 刊行을 準備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점토구결 자료의 조사 및 영인 상황을 총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4]

---

3) 이 사진 자료들은 초기에는 학회 차원에서 CD에 담아 배포하였고, 최근에는 점토구결 연구 모임을 통해 보급되고 있다.

4) [표 1]에서 조사 기간 및 참여자 명단은 이미 발표된 문헌에 기술된 내용과

資料	調査 期間	調査 參與者	備考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2000.7.	小林芳規, 西村浩子, 남풍현, 이승재, 윤행순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2000.7.	남풍현, 이승재, 윤행순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6	2000.8.~2000.11.	남풍현, 이승재, 윤행순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2002.4.~2002.5.	남풍현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22	2000.8.~2000.11.	남풍현, 이승재, 윤행순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2002.4.~2002.5.	남풍현, 박진호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2000.8.~2000.11.	남풍현, 이승재, 윤행순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2002.4.~2002.5.	남풍현, 김영욱, 박진호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2000.8.~2000.11.	남풍현, 이승재, 윤행순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2002.4.~2002.5.	남풍현, 이승재, 박진호	
誠庵本 (晉本)華嚴經 卷20	2001.3.~2001.4.	남풍현, 정재영, 이승재, 윤행순, 김영욱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2002.4.~2002.5.	남풍현, 정재영, 박진호	

필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참고 문헌의 기술 중에는 착오가 더러 있음). 이미 조사를 마친 문헌의 사진 촬영을 주목적으로 소장처를 방문, 실사한 것은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비고란에서 '移點'은 이점본의 작성 여부, '사진'은 인화한 사진의 배포 여부, '디지털화'는 사진을 그림 파일 형태로 배포하였는지의 여부, '영인출간'은 사진을 편집·가공하여 영인본으로 출간하였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킨다.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2000.10.~ 2001.1.	남풍현, 정재영, 윤행순, 김영욱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2000.12.~ 2001.2.	남풍현, 정재영, 윤행순, 김영욱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2001.3.~ 2001.5.	남풍현, 정재영, 윤행순, 김영욱, 이전경, 장경준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延世大本 法華經 卷1	2000.12.~ 2001.1.	이전경(발견) 남풍현, 정재영, 윤행순, 김영욱, 장경준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合部金光明經 卷3	2004.4.	박진호(발견+사진촬영)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2006.2.	남권희, 정재영, 남경란	
南禪寺本 瑜伽師地論 卷8	2005.8.	정재영, 남권희 (발견+사진촬영)	移點× 사진× 디지털화○ 영인출간×

[표 2] 點吐口訣 資料 調査 記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성암본 <華嚴經> 5종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반면 <合部金光明經> 권3, 남선사본 <瑜伽師地論> 권8은 사진 영인 자료가 공개되긴 하였으나 사진의 해상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정밀한 재촬영이 필요하다.[5] 또한 연세대본 <法華經> 권1은 아직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2. 硏究 모임의 結成과 共同 硏究

초기의 점토구결 연구는 자료 조사에서 작성된 移點本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懸吐 原則을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점본에 의

5) <合部金光明經> 권3의 경우 매우 정밀한 영인본이 제작되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정재영 · 남권희 · 남경란 2006 참조).

한 연구만으로는 원본의 실상을 보기 어려웠고, 정밀한 寫眞 影印本의 관찰을 통해 본격적인 解讀의 基礎를 다질 수 있었다.

점토구결의 해독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연구 모임의 결성이었다. 少壯 硏究者들이 만든 이 모임에서는 철저한 관찰과 토론을 통해 점토구결을 판독하고 해독하는 방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모임의 共同 硏究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資料	期間	硏究 發表者(가나다 순)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8	2002.1.~2002.11.	(김유범),박진호,서민욱,서형국,이병기,이용,이전경,장경준,황선엽
	2003.5.~2003.7.	박부자,박준석,박진호,서민욱,손명기,서형국,양순경,이병기,이용,이전경,장경준,황선엽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5	2003.1.~2003.4.	박진호,서민욱,서형국,이병기,이용,이전경,장경준,황선엽
	2004.3.~2004.5.	김성주,박준석,박진호,서민욱,손명기,이병기,이영경,이전경,장경준,황선엽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6	2004.1.~2004.10.	고성익,김선영,김성주,박부자,박준석,박진호,서민욱,손명기,송신지,양순경,이병기,이전경,장경준,조은주,황선엽
	2005.11.~2006.2.	고성익,김선영,김성주,김천학,박준석,박진희,서민욱,송신지,유경민,이병기,이전경,장경준,정진원,조은주,조호사토시,황선엽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22	2004.10.~2005.1.	고성익,김선영,김성주,김천학,박부자,박준석,박진호,서민욱,손명기,신중진,오미영,유현조,이병기,이승희,이영경,이전경,장경준,조은주,황선엽
	2007.6.~2007.11.	고성익,김미희,김선영,김성주,김지오,김천학,박준석,박진호,박진희,안대현,유현조,윤옥석,이용,이전경,장경준,정진원,조은주,조재형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36	2002.12.~2003.8.	박준석,박진호,서민욱,서형국,손명기,이병기,이용,이전경,장경준,황선엽
	2005.1.~2005.4.	고성연,김성주,박준석,박진호,신중진,유경민,이병기,이승희,이영경,이용,이전경,장경준,조은주,황선엽

誠庵本 (周本)華嚴經 卷57	2003.9.~ 2003.12.	김성주,박준석,박진호,서민욱,손명기,이병기,이승재,이용,이전경, 장경준,황선엽
	2006.2.~ 2006.6.	고성익,김선영,김성주,김지오,김천학,박준석,박진호,박진희,송신 지,서민욱,유경민,이용,이전경,장경준,정진원,조은주,조호사토시, 황선엽
誠庵本 (晉本)華嚴經 卷20	2005.4.~ 2005.6.	고성연,고성익,김선영,김성주,김천학,박준석,박진호,서민욱,신중 진,유경민,유현조,이병기,이승희,이영경,이용,이전경,장경준,조은 주,황선엽
	2006.7.~ 2007.1.	고성익,김선영,김성주,김지오,박준석,박진호,박진희,서민욱,송신 지,윤옥석,이전경,장경준,정진원,조은주,조호사토시,황선엽
合部金光明經 卷3	2004.5.~ 2004.8.	김성주,박부자,박준석,박진호,서민욱,손명기,양순경,이병기,이용, 이전경,장경준,황선엽
	2005.7.~ 2005.10.	김선영,김성주,김천학,박진희,서민욱,송신지,신중진,유경민,이승 희,이전경,장경준,조은주
南禪寺本 瑜伽師地論 卷8	2005.12.~ 2006.7.	고성익,김선영,김성주,김지오,김천학,박준석,박진호,박진희,서민 욱,유경민,윤옥석,이병기,이용,이전경,장경준,정진원,조은주,조호 사토시,황선엽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1	2006.11.~ 2007.5.	고성익,김선영,김성주,김지오,김천학,박준석,박진호,박진희,서민 욱,유현조,윤옥석,이전경,장경준,정진원,정혜선,조은주,조재형,조 호사토시
	2007.11.~ 2008.4.	고성익,김미희,김선영,김성주,김지오,김천학,박진호,박진희,안대 현,유현조,윤옥석,이용,이전경,장경준,정진원,조재형
湖林本 (周本)華嚴經 卷34	2007.1.~ 2007.8.	고성익,김선영,김성주,김지오,김천학,박준석,박진호,박진희,서민 욱,안대현,유현조,윤옥석,이전경,장경준,정진원,정혜선,조은주,조 재형
	2007.8.~ 2008.3.	고성익,김선영,김성주,김지오,김천학,박진호,박진희,안대현,유현 조,윤옥석,이용,이전경,장경준,정진원,조은주,조재형
湖林本 瑜伽師地論 卷3	2008.4.~ 현재	고성익,김미희,김성주,김지오,김천학,박진호,박진희,안대현,이용, 이전경,장경준,정진원,조재형,황선엽

[표 2] 點吐口訣 硏究 모임의 共同 硏究 記錄

점토구결 연구 모임에서는 발표를 맡은 회원이 먼저 자료에 대한 잠정적인 判讀과 解讀 方案을 제시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자료를 같이 보

면서 그 방안에 대해 合意에 이를 때까지 討論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6年餘 동안 꾸준히 자료를 읽어 왔다.[6]

이러한 공동 연구의 결과물로 지금까지 모두 5종의 '共同 判讀 및 解讀案'이 출간되었고 4종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7] 이 공동 판독 및 해독안은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지혜를 모아 만든 기념비적인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2.3. 지금까지 밝혀진 事實

그동안의 연구 결과 點吐口訣은 漢文을 우리말로 풀어 읽고 吐를 달아 그 결과를 기록한 釋讀口訣의 一種임이 밝혀졌다. <舊譯仁王經> 등의 석독구결에서는 漢字를 빌려 만든 口訣字가 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지만 여기서는 點, 線 등의 형태와 그것이 놓이는 위치 정보가 결합된 口訣點이 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점이 다르고,[8] 字吐를 달 때는 어순 표시를 위해 한자의 좌우측을 나누어 이용하지만 點吐를 달 때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9]

따라서 석독구결은 懸吐 方式에 따라 '點吐釋讀口訣'과 '字吐釋讀口訣'로 세분하고, 여기에 角筆로 기입된 측면을 덧붙이면 '角筆點吐釋讀

---

6) 이 모임은 김유범, 박진호, 이용, 장경준, 장윤희가 발의하여 2002년 1월 고려대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연세대, 서울대, 양지원 등에서 모여 왔다. 2008년 3월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양지원 빌딩 세미나실에서 모이고 있으며 점토구결 외에 자토구결과 한글 자료도 함께 읽고 있다.

7) 이 모임의 공동 연구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고(연구책임자: 이승재 교수), 덕분에 연구 결과물이 출간될 수 있었다.

8) 口訣字를 단위 요소로 하여 구성되는 吐를 '字吐', 口訣點을 단위 요소로 하여 구성되는 吐를 '點吐'라 부를 수 있다.

9) 자토구결에서 왼쪽에 달릴 토가 점토구결에서는 결과적으로 (자토구결에서 왼쪽으로 바뀌기 직전의) 오른쪽 토가 달릴 자리에 몰려서 달리게 된다.

口訣' 등으로 부를 수 있다.[10]

또한 점토구결은 佛家의 宗派에 따라 크게 두 계통으로 나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法相宗에서 주로 읽은 <瑜伽師地論> 系統과 華嚴宗에서 주로 읽은 <華嚴經> 系統이 그것이다. 이들은 點吐의 體系, 符號의 使用, 懸吐 樣相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點吐 體系를 살펴보면, <瑜伽師地論> 系統은 구결점의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면서 위치 구분이 대단히 섬세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華嚴經> 系統에서는 구결점의 형태가 훨씬 다양하지만 위치 구분은 덜 섬세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는 다음의 통계 자료와 그림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11]

10) 이 글의 용어 체계는 설명의 편의상 그동안 제안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를 따른 것이다. 현재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앞으로 점토구결의 연구가 깊어지면 용어 사용의 통일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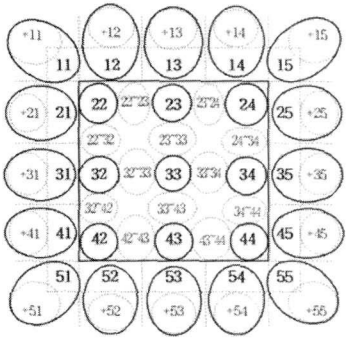
11) [표 3, 4]와 [그림 1, 2, 3, 4]는 장경준(2006ㄱ)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그림 1, 2]의 숫자는 해당 영역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고, [그림 3, 4]의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점토의 빈도수를 가리킨다.

형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단점	•	5427	77.99	5427	77.99
선	／	1086	15.61	543	7.80
	＼			217	3.12
	—			248	3.56
	ㅣ			78	1.12
쌍점	･･	424	6.09	101	1.45
	･･			135	1.94
	･･			104	1.49
	･･			84	1.21
눈썹	／･	22	0.32	18	0.26
	＼･			3	0.04
	／･			1	0.02

[표 3] 성암본 <瑜伽師地論> 권5, 권8에 쓰인 점토의 형태별 사용 빈도(총 6959예)

형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단점	•	3336	56.25	3336	56.25
선	／	1605	27.06	270	4.55
	＼			195	3.29
	—			254	4.28
	ㅣ			886	14.94
쌍점	･･	686	11.57	89	1.50
	･･			118	1.99
	･･			205	3.46
	･･			274	4.62
눈썹	／･	219	3.69	6	0.10
	＼･			31	0.52
	／･			14	0.24
	＼･			1	0.02
	—･			57	0.96
	—･			24	0.40
	—･			7	0.12
	ㅣ･			40	0.67
	ㅣ･			39	0.66
느낌표	／･	85	1.43	2	0.03
	＼･			0	0.00
	／･			2	0.03
	＼･			1	0.02
	—･			4	0.07
	—･			12	0.20
	ㅣ･			21	0.35
	ㅣ･			43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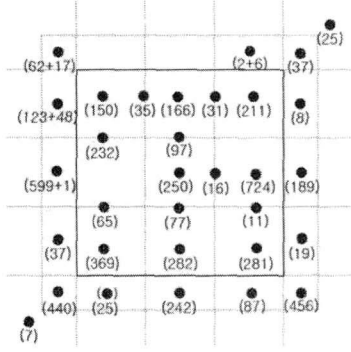
[표 4] 성암본 <華嚴經> 권36, 권57에 쓰인 점토의 형태별 사용 빈도(총 5931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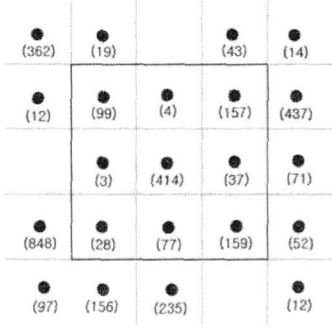
[그림 1] <瑜伽師地論> 계통의
위치 분할 표시 모형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림 2] <華嚴經> 계통의
위치 분할 표시 모형



[그림 3] 성암본 <瑜伽師地論> 권5와
권8에 사용된 單點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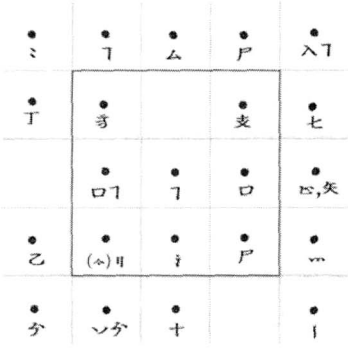
[그림 4] 성암본 <華嚴經> 권36과
권57에 사용된 單點의 분포

口訣點 가운데 基本이 되는 單點의 點圖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추정되고 있다.[12]

12) [그림 5, 6]의 점도는 장경준(2007)과 박진호(2003ㄴ)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약간 수정한 것이다.



[그림 5] <瑜伽師地論> 系統 單點의 點圖



[그림 6] (周本) <華嚴經> 系統 單點의 點圖

위의 [그림 5, 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가운데의 'ㄱ'에 대응되는 자리를 제외하면 서로 겹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두 계통의 점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반면 같은 계통의 점토구결끼리는 點圖도 卷次에 따라 약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3] 단점 이외의 구결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符號의 使用에서도 두 系統의 점토구결은 差異를 보인다. 이 차이는 같은 한자에 위치가 겹치는 점토를 둘 이상 달아야 하는 경우에 뚜렷이 드러나는데, <瑜伽師地論>에서는 이런 경우 인접한 한자에 토를 달고 '지시선'을 사용하지만 <華嚴經>에서는 해당 한자에 겹쳐서 토를 달거나 '중복선'을 사용한다. <瑜伽師地論>에서 '중복선'을 사용하거나 <華嚴經>에서 '지시선'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 그 밖에 텍스트의 통사 구조

13) <華嚴經> 系統의 경우 晉本(60권본) <華嚴經> 권20이 나머지 周本(80권본) <華嚴經>들(권6, 22, 31, 34, 36, 57)보다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瑜伽師地論> 系統은, 아직 성암본 <瑜伽師地論> 권5와 권8에 대해서만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 같은 계통 안에서의 차이를 상세히 논하기 어렵지만, 남선사본 권8이나 호림본 권3의 점도도 성암본 권5나 권8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의적으로 사용하는 부호 가운데 '보충선', '술목선'은 <華嚴經>에서만 쓰인 반면 '역독선', '합부역독선'은 거의 <瑜伽師地論>에서만 쓰인 것도 계통에 따른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懸吐 樣相의 측면에서도 두 系統의 差異는 쉽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한문 원문에서 '能, 善'자가 부사로 쓰여 '능히, 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瑜伽師地論>에서는 'ᄉᆞ'에 대응하는 점토가 달리고 <華嚴經>에서는 'ᄒᆞ'에 대응하는 점토가 달린다. 그리고 이 차이는 자토구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동일한 환경에서 <瑜伽師地論>, <合部金光明經>, <舊譯仁王經>에는 'ᄉᆞ'가 달리고 <華嚴經>, <華嚴經疏>에는 'ᄒᆞ'가 달린 것이다.[14]

이처럼 특정한 환경에서 문헌에 따라 현토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때에는 대체로 <瑜伽師地論> 系統과 <華嚴經> 系統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고, 이 구분은 대부분의 경우 점토구결과 자토구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문헌의 계통에 따른 차이가 언어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며 점토구결과 자토구결의 구분은 단지 표기법상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3. 點吐口訣 硏究의 當面 課題

3.1. 입증 가능한 論議와 충실한 檢證

그동안의 點吐口訣 硏究를 살펴보면 위 2.3.에 언급한 것 외에도 많

14) 단, '能'이 원문에서 '不, 非, 莫, 無'와 같은 부정표현과 함께 쓰일 때에는 여러 문헌에서 대체로 '能(ㅣ)ᄋᆞᆺ'로 현토된다. 그리고 이때 '不能' 구문은 <화엄경> 계통의 경우 '不'에 (기능을 알 수 없는) 특이한 토가 덧붙고 <유가사지론> 계통의 경우 '能'에 아무런 토도 달리지 않아 계통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이 차이는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에서 모두 관찰된다.

은 논의가 있었다. 우선 각 자료의 點吐 體系를 반영한 點圖를 더욱 精密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漢字의 字形에 따라 點吐의 位置가 可變的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이나 點吐 以外의 여러 가지 符號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시야를 넓혀 點吐의 文字論的 측면을 考察하거나 日本 訓點 자료와의 關聯을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 연구 가운데에는 여기서 그 결과를 자신 있게 소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수준에서 立證하기 힘든 假說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데 머무르거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논의가 발표된 이후에 그에 대한 檢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물론 연구의 草創期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논의의 범위를 좁히되 그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3.2. 〈瑜伽師地論〉 系統과 〈華嚴經〉 系統의 差異에 대한 올바른 解釋

點吐口訣이 <瑜伽師地論> 系統과 <華嚴經> 系統으로 나뉘고 이러한 현상이 字吐口訣에도 同一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온 史的인 論議를 根本的으로 되돌아보게 한다.

지금까지 釋讀口訣 자료의 年代를 논할 때에는 <華嚴經疏> 卷35, <華嚴經> 卷14, <合部金光明經> 卷3, <舊譯仁王經> 卷上, <瑜伽師地論> 卷20의 時代順을 전제한 다음, <華嚴經> 系統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字吐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표기를 반영하고 반대로 <瑜伽師地論> 系統에 특징적으로 쓰인 字吐는 후대의 표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常識이었다. 그런데 점토구결의 해독 결과는 이러한 상식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자토구결에서 '攴'는 <華嚴經> 계통에서는 '如'의 훈을 적는 데뿐 아니라 부사의 말음첨기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 반면 <瑜伽師地論> 계통에서는 '如'의 훈을 적는 데에만 쓰였다. 그리고 위의 상식에 의하면 '攴'의 쓰임이 후대의 자료에서 매우 제약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攴'의 독법이나 기능이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15] 그러나 자토구결보다 절대 연대가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토구결에서도 '攴'에 대응하는 點吐의 출현 환경은 자토구결과 일치한다. <華嚴經> 계통에서는 다양한 자리에 쓰였으나 <瑜伽師地論> 계통에서는 '如'의 훈을 적는 데에만 쓰인 것이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예로 든 '攴'의 분포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석독구결 자료의 연대를 논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고, 자료의 계통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3. 자유로운 硏究 與件의 造成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료를 볼 줄 아는 안목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자료의 최초 발견자(또는 조사자)가 그 사실을 알리는 첫 연구 성과를 공표할 때까지 후속 연구자들은 그것에 대한 논의를 미루는 것을 불문율로 여겨 왔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合部金光明經> 권3과 南禪寺本 <瑜伽師地論> 권8의 점토구결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두 자료의 발견자(또는 조사자)들의 첫 연구

15) 실제로 그동안 '攴'의 독법이나 기능에 대해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성과가 아직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合部金光明經> 권3의 사진 자료는 2004년 봄, 남선사본 <瑜伽師地論> 권8의 사진 자료는 2005년 가을에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었다. 이 사진들은 비록 기대만큼 정밀하지는 않지만 점토구결을 판독할 수는 있는 수준이다. 당연히 관심있는 연구자들은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보았고, 점토구결 연구 모임에서도 공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말미암아 현재 <瑜伽師地論> 계통 점토구결의 연구는 오히려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된 측면이 있다. 이미 새로운 자료를 본 상태에서 기존에 연구된 성암본 <瑜伽師地論> 권5, 권8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들 자료에 대한 정밀한 영인본의 제작, 공개와 더불어 후속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점토구결의 연구 성과 가운데 필자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과 당면한 과제 몇 가지를 간추려 기술하였다.

이 글에 미처 언급되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누락된 논의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筆者의 시각이 다소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개별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비평을 하지 않은 것도 필자가 아직 이들에 대해 私心 없이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점 여러분의 諒解를 구하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도록 연구 문헌 목록을 뒤에 덧붙임으로써 필자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면해 보고자 한다.

點吐口訣 硏究 文獻 目錄(2000.7.~2008.7.)

2000년 7월에 점토구결이 발견된 이래 2008년 7월까지 이루어진 硏究 文獻의 目錄을 硏究者別로 發表順으로 싣는다. 공동 저술은 연구자마다 모두 수록하였다. 단, 점토구결 연구 모임의 '공동 판독 및 해독안'이 실린 책은 집필진 명단에 이름이 올랐더라도 다른 연구 업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이미 발표된 논문을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은 수록하지 않았다.

고정의(高正儀)

고정의(2004), 「口訣 硏究의 現況과 課題」, 『口訣硏究』 12, 구결학회, 5-46.

김문경(金文京)

김문경(2002), 「東아시아 漢字 文化圈의 訓讀現象-韓日近世의 加點 資料」, 『口訣硏究』 8, 구결학회, 264-277.

김선영(金善英)

김선영(2006),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2)」, 『口訣硏究』 16, 구결학회, 317-336.

김선영 외(2006),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김성주(金星周)

김성주(2004), 「'ㅜ'와 '43(\)'」, 『동국어문학』 16,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11-130.

김성주(2005ㄱ), 「석독구결의 사동 표현」, 『口訣硏究』 14, 구결학회, 147-171.

김성주(2005ㄴ),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6)」, 『口訣硏究』 14, 구결학회, 213-232.

김성주(2006ㄱ), 「釋讀口訣의 被動 表現」, 『口訣硏究』 16, 구결학회, 119-140.

김성주(2006ㄴ), 「點吐釋讀口訣 資料 周本 華嚴經 卷第6, 卷第57의 書誌」, 『角

筆口訣의 解讀과 飜譯2』, 태학사, 67-110.
김성주(2007), 「주본화엄경과 진본화엄경의 점토석독구결 비교 연구」, 『규장각』 30,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硏究院, 29-51.
김성주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김성주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김영만(金永萬)

김영만(2003), 「瑜伽師地論 卷第五·八 角筆口訣에 나타난 如(支,只)」, 『제2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101-107.

김영욱(金永旭)

김영욱(2001ㄱ),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三의 口訣에 대하여」, 『제24회 共同硏究會 發表 論文集』, 구결학회, 137-143.
김영욱(2001ㄴ),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구결학회, 57-77.
김영욱(2001ㄷ), 「瑜伽師地論 雙點吐의 解讀 方法 硏究」, 『제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215-229.
김영욱(2002), 「11세기 문법형태들을 찾아서」,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157-172.
김영욱(2003ㄱ),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硏究」, 『口訣硏究』 10, 구결학회, 47-78.
김영욱(2003ㄴ), 「11세기 국어 문법 형태 연구－瑜伽師地論을 中心으로」, 『국어교육』 111, 국어교육학회, 293-312.
김영욱(2003ㄷ), 「周本 華嚴經 卷三十六의 口訣」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133-154.
김영욱(2004), 「判比量論의 國語學的 硏究」, 『口訣硏究』 12, 구결학회, 81-98.
김영욱(2006), 「角筆의 起源에 대하여」, 『口訣硏究』 16, 구결학회, 71-88.
김영욱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김영욱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김영욱 외(2006),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김천학(金天學)

김천학(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0)」, 『口訣硏究』 15, 구결학회, 283-294.
김천학 외(2006),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3 -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남경란(南京蘭)

남경란(2004), 「기림사본 <法華經>의 부호에 대하여」, 제29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04.2.10) 발표 원고.
남경란 외(2006), 「<금광명경> 부호 구결 연구」, 제3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06.2.7.) 발표 원고.

남권희(南權熙)

남권희(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남권희 외(2006), 「<금광명경> 부호 구결 연구」, 제3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06.2.7.) 발표 원고.

남풍현(南豊鉉)

남풍현(2000ㄱ), 「여말 선초 법화경의 점표시 순독구결」, 제23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2000.8.16.) 발표 자료.
남풍현(2000ㄴ),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5-45.
남풍현(2001), 「口訣의 種類와 그 發達」, 『일본 북해도대학 워크숍 발표논문집』, 11-20.
남풍현(2002), 「高麗時代 點吐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중심으로」, 『朝鮮學報』 183, 朝鮮學會, 1-22.

남풍현(2003ㄱ), 「古代國語의 時代 區分」, 『口訣硏究』 11, 구결학회, 2-22.
남풍현(2003ㄴ), 「修德寺 所藏 法華經 卷七의 角筆 釋讀口訣에 대하여」, 『제2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61-69.
남풍현(2003ㄷ), 「周本 華嚴經 卷六의 點吐釋讀口訣 硏究」,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41-54.
남풍현(2004), 「宋日基藏 法華經卷四의 角筆 順讀口訣에 대하여」, 『제30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35-41.
남풍현(2005), 「韓國의 古代口訣資料와 그 變遷에 대하여」, 『東方學會 創立50周年 記念論文集』, 日本東方學會. (일본어)
남풍현(2006ㄱ), 「韓國에 있어서 角筆文獻 硏究의 現況과 今後의 課題」, 일본 廣島大學 국제학술회의(2006.11.13) 발표 자료.
남풍현(2006ㄴ),「韓國의 古代口訣資料와 그 變遷에 대하여」,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임용기·홍윤표 편), 태학사, 615-637. (남풍현 2005의 한글 번역임)
남풍현(2007), 「韓國의 口訣과 그 讀法」, 아시아學會(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미국 보스톤, 2007.3.23) 발표 자료.
남풍현(2008), 「口訣學會 20年의 回顧와 展望」, 『口訣硏究』 21, 구결학회, 5-25.
남풍현 외(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69-102.
남풍현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太學社.
남풍현 외(2006),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박준석(朴俊錫)

박준석(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7)」, 『口訣硏究』 15, 구결학회, 245-258.
박준석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박준석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박진호(朴鎭浩)

박진호(2003ㄱ), 「『瑜伽師地論』 點吐口訣에서 11위치의 單點에 대응되는 字吐」,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03.8.20.) 발표 자료.

박진호(2003ㄴ), 「周本 『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口訣硏究』 11, 구결학회, 211-248.

박진호(2004ㄱ),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 『口訣硏究』 12, 구결학회, 215-232.

박진호(2004ㄴ), 「周本 『華嚴經』 卷第6의 點吐 重複 表記와 符號」, 『口訣硏究』 13, 구결학회, 129-148.

박진호(2006), 「晉本 <華嚴經> 卷第20의 點吐 解讀」, 『口訣硏究』 16, 구결학회, 173-208.

박진호(2008), 「口訣 資料 解讀의 方法과 實際」, 『2008 韓日 國際 워크숍 發表論文集』,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59-365.

박진호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박진호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박진호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서민욱(徐民旭)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7, 구결학회, 167-197.

서민욱(2004), 「'如'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13, 175-220.

서민욱(2005ㄱ),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5)」, 『口訣硏究』 14, 구결학회, 197-212.

서민욱(2005ㄴ), 「『瑜伽師地論』 卷5·8의 點吐口訣 硏究」,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민욱(2005ㄷ), 「『유가사지론』 권5·8에 현토된 점토의 위치 세분에 대하여」, 『口

訣硏究』 15, 구결학회, 77-132.
서민욱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서민욱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서민욱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손명기(孫明基)

손명기(2003), 「點吐口訣에 대한 小考」, 『대전어문학』 19·20,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6.
손명기(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9)」, 『口訣硏究』 15, 구결학회, 269-282.
손명기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손명기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손명기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안대현(安大鉉)

안대현(2008ㄱ),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 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口訣硏究』 20, 구결학회, 259-286.
안대현(2008ㄴ),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2)－12와 14 위치 및 51과 55 위치 이외의 점토들에 대하여－」, 『國語學』 51, 국어학회, 195-227.

윤행순(尹幸舜)

윤행순(2000), 「일본의 오코도点과 한국의 초조대장경에서 보이는 부호 구결의 비교」, 제23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2000.8.16.) 발표 자료.

윤행순(2001), 「한국의 符號口訣과 일본의 오코토(ヲコト)點에 대하여－瑜伽師地論을 중심으로－」, 『일본 북해도대학 워크숍 발표논문집』, 91-106.

윤행순(2003ㄱ), 「漢文讀法에 쓰여진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오코토點의 비교－『瑜伽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10, 구결학회, 79-114.

윤행순(2003ㄴ), 「周本 華嚴經 卷第二十二에 대하여」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55-71.

윤행순(2004ㄱ),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訓点에 나타나는 華嚴經의 不讀字 用法」,『口訣硏究』 13, 구결학회, 39-64.

윤행순(2004ㄴ), 「大方廣佛華嚴經에 기입된 한국의 角筆符號口訣과 일본의 訓點에 대한 비교연구」, 『일본문화학보』 22, 한국일본문화학회, 1-14.

윤행순(2005), 「韓日의 漢文讀法에 나타나는 乃至에 대해서」, 『口訣硏究』 14, 구결학회, 97-122.

윤행순(2006), 「韓國의 釋讀口訣과 日本의 訓點資料에 기입된 逆讀點에 대하여」,『일본문화학보』 28, 한국일본문화학회, 1-19.

윤행순(2007), 「韓日 漢文讀法에서의 不讀字 범위에 대한 고찰」, 『口訣硏究』 19, 구결학회, 107-137.

윤행순 외(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제107, 東京, 訓點學會, 69-102.

윤행순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太學社.

윤행순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윤행순 외(2006),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이병기(李秉騏)

이병기(2006),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3)」, 『口訣硏究』 16, 구결학회, 337-358.

이병기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이병기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이병기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이승재(李丞宰)

이승재(2000),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135-152.
이승재(2001ㄱ),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硏究』 7. 구결학회, 1-32.
이승재(2001ㄴ),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229-250.
이승재(2001ㄷ), 「符號字의 文字論的 意義」, 『國語學』 38, 국어학회, 89-116.
이승재(2002ㄱ), 「符號의 字形과 制作 原理」, 『문법과 텍스트』(고영근선생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출판부, 61-78.
이승재(2002ㄴ), 「옛 文獻의 각종 符號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21-43.
이승재(2003), 「주본 화엄경 권제57의 서지와 각필 부점구결에 대하여」, 『한글』 제262, 한글학회, 215-246.
이승재(2004), 「角筆 符點口訣의 意義와 硏究 方法」, 『口訣硏究』 제13집, 구결학회, 289-316.
이승재(2005ㄱ), 「韓國 符點口訣의 記入 位置」, 『朝鮮學報』 194, 朝鮮學會, 1-25.
이승재(2005ㄴ), 「Another Type of Korean Translation: Stylus-impressed Cypher-Kugyol[口訣]」, 『口訣硏究』 15, 구결학회, 173-197.
이승재(2006), 「符點口訣의 記入 位置에 대하여」,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13-45.
이승재 외(2001), 「韓國의 點吐 口訣에 대하여」, 『訓點語와 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語學會. 103-126(1-24).
이승재 외(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구결학회, 115-146.
이승재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이승재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이승재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이승재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이 용(李勇)

이 용(2004ㄱ),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3)」, 『口訣硏究』 12, 구결학회, 233-247.
이 용(2004ㄴ), 「點吐口訣 연구의 현황」, 『한국문화』 3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73-305.
이 용(2005), 「각필구결 자료의 한자와 구결점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口訣硏究』15, 구결학회, 249-274.
이 용(2006), 「각필 점토 구결 자료의 부정문에 대하여」, 2006년 여름 구결학회·국어사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2006.8.1.) 발표 자료.
이 용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이 용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이 용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이전경(李田京)

이전경(2002), 「각필자료 법화경 권1에 대하여」, 제12차 국어사자료학회 학술발표대회(2002.8.16) 발표 원고.
이전경(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4)」, 『口訣硏究』 13, 구결학회, 221-243.

이전경(2005), 「각필 자료 『유가사지론』 권5, 권8의 점토에 대하여」,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1』, 태학사, 67-110.

이전경(2006), 「연세대 소장 각필 『묘법연화경』의 조사(助詞)」,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2』, 태학사, 99-116.

이전경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이전경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이전경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장경준(張景俊)

장경준(2002ㄱ),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2.23.) 발표 원고.

장경준(2002ㄴ),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9, 구결학회, 205-225.

장경준(2002ㄷ), 「구결점(口訣點)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국어사 자료 연구』 3, 국어사자료학회, 5-30.

장경준(2003ㄱ), 「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227-247.

장경준(2003ㄴ),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지시선'에 대하여」, 『口訣硏究』 11, 구결학회, 189-209.

장경준(2004ㄱ),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13, 구결학회, 149-174.

장경준(2004ㄴ),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 『口訣硏究』 12, 구결학회, 191-213.

장경준(2005ㄱ),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

점(單點)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경준(2005ㄴ),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1』, 태학사, 127-141.
장경준(2006ㄱ), 「점토 체계의 특징이 부호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성암본 <유가사지론> 권5, 8의 사례를 중심으로-」, 『口訣硏究』 16, 구결학회, 209-239.
장경준(2006ㄴ), 「석독구결의 구결자 '火'과 'ᄉᆞᆺ'에 대하여」, 『국어학』 47, 국어학회, 265-287.
장경준(2006ㄷ),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점의 해석」,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07-129.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硏究』, 태학사.
장경준(2008ㄱ),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지시선'에 관한 補論」, 『국어학』 51, 국어학회, 175-194.
장경준(2008ㄴ), 「高麗初期 點吐口訣의 諸符號」,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307-339.
장경준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장경준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장경준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정재영(鄭在永)

정재영(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硏究』 7, 구결학회, 33-56.
정재영(2003ㄱ), 「口訣 硏究史」, 『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집문당, 101-125.
정재영(2003ㄴ), 「晉本 華嚴經 卷二十의 書誌와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15-40.
정재영(2006), 「韓國의 口訣」, 『口訣硏究』 17, 구결학회, 129-189.

정재영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太學社.
정재영 외(2006), 「<금광명경> 부호 구결 연구」, 제32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06.2.7.) 발표 원고.

정진원(鄭鎭元)

정진원(2006),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4)」, 『口訣硏究』 16, 구결학회, 359-382.

조병순(趙炳舜)

조병순(2002), 「書誌學的 側面에서 본 原典의 重要性」, 『口訣硏究』 8, 구결학회, 5-13.

조은주(趙殷柱)

조은주(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8)」, 『口訣硏究』 15, 구결학회, 259-268.
조은주 외(2006),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황선엽(黃善燁)

황선엽(2005), 「『瑜伽師地論』 卷5, 卷8의 書誌」,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1』, 태학사, 111-126.
황선엽(2006),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1)」, 『口訣硏究』 16, 구결학회, 299-316.
황선엽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初彫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와 卷第八을 중심으로－』, 태학사.
황선엽 외(2006),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태학사.
황선엽 외(2006),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周本 華嚴經 卷第六, 五十七』, 태학사.

小林芳規(고바야시 요시노리)

小林芳規(2002ㄱ),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 『口訣硏究』 8, 구결학회, 21-76.

小林芳規(2002ㄴ), 「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 『朝鮮學報』 182, 朝鮮學會, 1-82.

小林芳規(2003ㄱ),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 『大谷學報』 82-2, 58-88.

小林芳規(2003ㄴ), 「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京都 大谷大學藏 『判比量論』에서의 發見－」, 『口訣硏究』 10, 구결학회, 5-30.

小林芳規(2003ㄷ), 「八世紀の日本における角筆加點とその源流」, 『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集』, 21-56.

小林芳規(2005), 『角筆硏究導論(上卷 東アジア篇)』, 東京: 汲古書院.

小林芳規(2006), 「日本 訓点의 一源流」, 『口訣硏究』 17, 구결학회, 5-40.

小林芳規(2007), 「Hanmun~kugyol=Kambun~kunten: Pointing, Reading, and Appropriation of Language in Korea and Japan, 9th-14th」, 아시아學會(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미국 보스톤, 2007.3.22-25) 발표 자료.

小林芳規 外(2001), 「韓國遺存の 角筆文獻 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36-68.

小林芳規 外(2003), 「日本에 있어서 華嚴經의 講說과 初期加點資料에 대해서」,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117-132.(윤행순 역)

小林芳規 外(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西村浩子(니시무라 히로코)

西村浩子 外(2001), 「韓國遺存の 角筆文獻 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36-68.

西村浩子 外(2003), 「日本에 있어서 華嚴經의 講說과 初期加點資料에 대해서」,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117-132.(윤행순 역)

西村浩子 外(2003),『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石塚晴通(이시즈카 하루미치)

石塚晴通(2002),「漢字文化圈の加點史から見た高麗口訣と日本語初期訓點資料」,『口訣硏究』 8, 구결학회, 111-128.

柚木靖史(유노키 야스시)

柚木靖史(2005),「韓國角筆文獻『孟子』에 보이는 角筆의 返讀線」,『漢文讀法과 東아시아의 문자』(제3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353-374.

〔412-73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은빛마을 514동 201호〕
E-mail: verdulo@hanafos.com
접수일자: 2008. 05. 09.
게재결정: 2008. 07. 17.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e study on point-attached *Kugyol*(點吐口訣)

Chang, Kyong-jun

In this paper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study on point-attached *kugyol*(點吐口訣) are briefly introduced. A bibliography on point-attached *kugyol* from July 2000 to June 2008 is also included in it.

The achievements of study on point-attached *kugyol* are as follows : decipherment of point-attached *kugyol* is much realized through coworking, it is cleared that point-attached *kugyol* is a kind of seokdok *kugyol*(釋讀口訣), it is cleared that seokdok *kugyol* is devided into 2 types - *Yuqieshidilun*(瑜伽師地論) type and *Huayanjing*(華嚴経) type. And the problems are as follows : provable discussion and precise verification, correct interpretat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2 types of seokdok *kugyol*, free research condition.

Key Words : *kugyol*(口訣), point-attached *kugyol*(點吐口訣), seokdok *kugyol*(釋讀口訣), *Yuqieshidilun*(瑜伽師地論), *Huayanjing*(華嚴経)